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The Economsit: 미국은 2024년에 연착륙 할 수 있을까?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주식 연말 다가오면서 마지막 상승 기대
- CNN Busines: 주택 모기지 9주째 연속 하락

#### [미국 무역]

- WSJ: 바이든, 선거 앞두고 동맹국들과 관세 해소에 어려움

#### [오일]

- WSJ: 오일 올해 1백불 상회 하지 못했을까?
- Bloomberg: OPEC+ 등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 하락

#### [자원]

- Bloomberg: 니켈, 올해 40% 이상 폭락... 구리와 철광석은 상승

#### [전기차]

- Bloomberg: 중국 BYD, 미국 전기차 기업들을 앞서다

#### [중국 경제]

- CNN Business: 경제학자들, “내년에도 중국 경제 더 좋지 않을 수도”
- WSJ: 중국이 위안화를 관리하는 전략
- Bloomberg: 중국, 글로벌 친환경 선박 업계 선두 추진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미 기업들, 가격 인상에 한계 느끼다
- WSJ: 자동차사들, 현금 많지만...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The Economist: Will America manage a soft landing in 2024?

#### 미국은 2024년에 연착륙 할 수 있을까?

- 요지: 정책 결정자들이 경기 침체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능할지 모른다.
- 필라델피아 연방중앙은행이 조사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말 연간 인플레이션은 2.5%를 유지할 것이며 반면에 실질 GDP는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 연간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금융시장은 이같은 ‘소프트랜딩’전망에 희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Set for Last Hurrah as Year Draws to Close: Markets Wrap****미 주식 연말 다가오면서 마지막 상승 기대**

- 미 증시는 지난 2004년 이래 가장 긴 기간인 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LPL Financial의 선임 글로벌 전략가는 “2024년도 비슷하게 강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미국 정부의 막대한 국채 발행,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목할 만한 뉴스가 많지 않고, 매도자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Mortgage rates drop for the ninth week in a row****주택 모기지 9주째 연속 하락**

- 미 주택 모기지율이 이번주에도 하락해 지난 1980년 이후 주택 구매 여력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자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
- 지난 8월 중순 이래 처음으로 12월초 7% 밑으로 하락했는데 이번주에 또 다시 하락했다.
- 12월 28일 끝나는 주에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전주의 6.67%에서 6.61%로 감소했다고 Freddie Mac 통계는 목요일 밝혔다. 1년전 평균 30년 모기지율은 6.42%였다.

CNN Business 기사

## [미국 무역]

**WSJ: Biden Struggles to Push Trade Deals With Allies as Election Approaches****바이든, 선거 앞두고 동맹국들과 관세 해소에 어려움**

-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유럽연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 관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 이는 선거가 다가오는 해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양측은 협상을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관세를 없애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비난하면서 바이든이 재선되지 않는다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오일]

### **WSJ: Why Oil Prices Never Surged to \$100 This Year** 오일 올해 1백불 상회 하지 못했을까?

- 당초 오일 가격이 배럴당 1백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오일 회사들이 석유 공급을 급증 시켰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오일 시장에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
- 미국은 올해 하루 평균 1천2백9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예상되며 이는 작년보다 1백만 배럴, 당초 예상치 보다 60만 배럴 많은 양이다.

WSJ 기사

### **Bloomberg: Oil Limpes Into 2024 as OPEC+ and War Fail to Prevent Annual Drop** OPEC+ 등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 하락

- OPEC+ 이외의 외부 국가들의 공급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쟁과 OPEC+의 생산 감소가 유가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유가는 202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현재 배럴당 72달러로 올해 한해 10% 감소했다. 미국의 비축량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Bloomberg 기사

[자원]

### **Bloomberg: Nickel Is Year's Biggest Metals Loser, Copper Manages Small Gain** 니켈, 올해 40% 이상 폭락... 구리와 철광석은 상승

- 스테인리스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금속인 니켈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40% 이상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이래로 가장 큰 감소다.

- 이는 싱가포르 거래소(SGX)에서 철광석이 20% 가까이 그리고 구리가 3%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 올해 금속 시장은 글로벌 경제 악화와 중국의 불확실한 경제전망으로 압박을 받아왔다.
- 선물 분석가인 Huatai는 니켈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는 뚜렷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전기차]

#### **Bloombeg: If EVs Are the Future, the Future Is a Long Way Off 중국 BYD, 미국 전기차 기업들을 앞서다**

- 최근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미국인들, 전기차 관심 식어간다”는 잘못됐다. 사실, 미국의 운전자들은 전기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 전기차 주요 수요층 중국인들이며, 이는 올해 BYD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다.
- 한 중국인 헤지펀더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의 크기와 브랜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보다는 혁신과 그 혁신을 이어나갈 속도가 생명이라고 한다. 그는 BYD가 오래전부터 누구도 생각치 못한 빠른 혁신을 위해 준비해왔으며, 이제는 BYD가 업계에서 선두에 서 있다고 말한다.
-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이다. 중국 자동차 기업은 이미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기차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 [중국 경제]

#### **CNN Business: China's economy had a miserable year. 2024 might be even worse 경제학자들, “내년에도 중국 경제 더 좋지 않을 수도”**

- 많은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략 5%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전 10년 동안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6%였던 것에 비하면 떨어진 것이며, 2024년에도 중국 경제가 더 힘들수도 있을 것이라 말한다.

- 미국 기업 연구소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Derek Scissors는 2024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GDP의 성장이 아니라 방향 즉, GDP 감소가 될 것이라 말했다.
- 그는, 중국 시장 내에 큰 개선이 없다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전에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것을 말한다.
- 지난 11월 IMF는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4%가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점차 감소해 2028년엔 3.5% 성장할 것이라 말했다. 그 이유로 둔화한 생산량과 고령화를 꼽았다.

CNN Business 기사

## WSJ: How China Manages Its Currency—and Why That Matters 중국이 위안화를 관리하는 전략

### 중국: 두 개의 위안화를 가지다

- 중국은 신기한 화폐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내용 위안화와 보다 더 자유롭게 거래되는 국외용 위안화 두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가 중국 정부가 정한 기준 환율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락하고 있다. 매일 아침 중국 외환거래 시스템이 다른 통화에 대한 위안화 기준환율을 발표하고, 기준 환율 범위에서 벗어난 환율 거래를 막는 것이다. 반면, 국외용 위안화는 자유롭게 거래된다.

### 중국인민은행의 통화관리 방법

-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 예를 들어, 중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고, 달러를 다시 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 한편, 해외 외환 시장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더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국유 기업들이 위안화 기반 채권을 발행하거나, 중국 국유 은행이 외환 시장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 기축통화를 향한 중국의 야망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이며, 외환 거래의 약 90%를 구성하고 있다.
- 이 때문에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막대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이점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위안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드는데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 위안화를 관리하는 큰 이유이다.

WSJ 기사

## Bloomberg: China Wants to Dominate the New Era of Clean Shipbuilding 중국, 글로벌 친환경 선박 업계 선두 추진

- 중국이 친환경 선박을 제조하는 세계 조선업계의 선두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
- 중국은 2025년까지 액화 천연가스와 친환경 메탄을 포함한 저탄소 선박의 전체 글로벌 생산량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국은 이미 태양광 패널,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의 글로벌 생산량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From FedEx to airlines, companies are starting to lose their pricing power**

##### **미 기업들, 가격 인상에 한계 느끼다**

- 수년간 소비자 소비가 견조했지만, 이제 일부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 FedEx, Target, General Mills 등의 기업이 매출 전망을 낮췄고, 항공사들은 비수가 요금을 인하했다.
- 경제 전반에 수요와 소비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완화와 공급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CNBC 기사

#### **WSJ: Carmakers Are Drowning in Cash**

##### **자동차사들, 현금 많지만...**

- 올해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는 수익성이 좋았다.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구입했다. 올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 자동차 가격은 최소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판매 인센티브는 늘고 있다.
- 주요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의 가격 경쟁으로 올해 전략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전기차 투자에 대한 경제성은 악화되었다.
- 이에 따라 좋은 실적 후 현금 많지만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내년 금리인하, 부채 허덕이는 美 기업들에 '생명줄' 가능성****'위험등급' 벤처투자 유치 업체 등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이르면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들에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코로나19 여파 대응 과정에서 2020년 3월 1.7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0.25%로 만들었고, 이후 '제로 금리'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1조7천억 달러(약 2천186조원)가량을 빌렸다.

하지만 연준은 이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준금리 상단을 5.5%로 끌어올렸고, 그 여파로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등 기업 다수가 보유 현금 소진과 추가 대출 어려움 속에 파산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